



2018년 학자금부활! 임금피크제 재협상 쟁취!

**총단결! 총력투쟁! 투쟁속보**

9대 요구 쟁취! '18투쟁 승리!

제 5 호

2018년 5월 23일(수)

발행: KT노동조합

# 회사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중앙상무집행위원 5월 23일 광화문 출근 선전전

조합간부  
선도투쟁  
'18투쟁승리



중앙상집 간부들은 오늘도 광화문 사옥에서 투쟁속보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사측의 교섭태도의 문제점을 알리며 출근선전전을 이어갔다. 노동조합 9대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제안은 순간을 모면하고 시간만 끌기 위한 얄팍한 꼼수로, 오히려 KT노사 관계를 악화일로로 부추길 뿐이다. 김해관 위원장은 연일 철야농성과 출근 선전전으로 바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에게 “아직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 덕분에 조금씩 고지를 향해가고 있다”며 독려한 뒤 “이번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대학학자금 부활! 임금피크제 재협상! 실질임금 쟁취! 더 이상은 못 참겠다. 9대 요구안 쟁취하자!



5월 23일(수) 12시 30분, 이날 오후 2시에 있을 제4차 본 교섭을 앞두고 수도권 조합간부 100여 명이 분당 본사 앞에 모여 단체교섭위원들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투쟁이 완결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하다”면서 “조합원을 살리고 KT를 살리기 위한 이번 투쟁의 승리를 위해 일치된 행동으로 임해, 명분 있는 정당한 투쟁은 기필코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어 KT가 진정한 글로벌 1등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합간부가 나서야 하며, 전 조합간부는 이번만큼은 끝장을 낸다는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선봉에 서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노동조합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순간만 모면하려는 안일하고 미온적인 사측의 태도에 분노한다. 회사의 기만을 말살하고, 조합원의 생존 고충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전 조합간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